춤웹진 The Dance Webzine

제 17 호 2011. 02. 1.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편집위원 김채현 이병옥 김영희 이지현 서정록

춤 웹진은 월 2회 정기 발행됩니다. 춤 웹진 구독을 권하시려면 춤웹진 발송처 이메일 주소로 권유 이메일 주소를 답신으로 전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춤웹진을 다른 분들에게 전송해 주시기를 권합니다. 칼럼, 에세이 등 독자 기고도 받으며, 접수된 원고는 춤웹진의 판단에 준해 선택 게재됩니다. - 편집자

춤 웹진은 PDF 형식으로 발행됩니다. 춤웹진을 읽는 기본 방식은 아래위 방향의 스크롤(두루마리) 형식이며, 전자책 방식의 양면 펼쳐 읽기는 상단의 도구 메뉴 맨오른쪽 푸른색 전자책 아이콘을 눌러 클릭하면 손쉽게 가능합니다. 춤웹진은 본 협회의 홈페이지(www.koreadance.kr)에서도 구독 가능합니다. - 편집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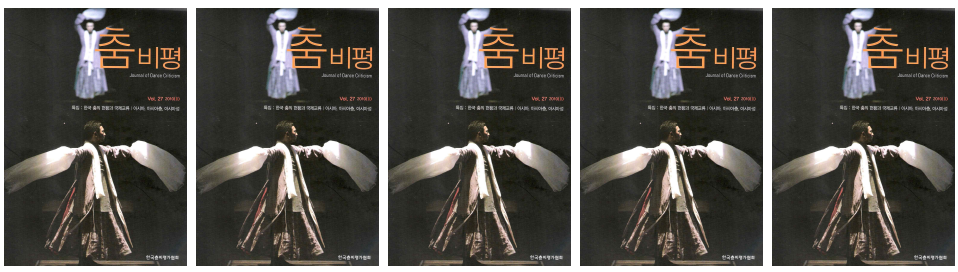
■ 소식
한국춤비평가협회, '춤비평' 제27호 발간

■ 소식
한국춤비평가협회, 무용계 신년 대화모임 및 춤비평가상 시상식 가져

■ 시평 예술 난개발 4 김 채 현

■ 한국춤비평가협회 동정(動靜)

김 채현 회원은 2월 중순까지 극장 문화와 춤 변동상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과 유럽을 여행하며, 최근 이메일 계정을 dancia333@gmail.com으로 변경하였다. *춤웹진



광고


SEOUL
TANZ
STATION
2011년 1월 17일
Seoul Tanz Station 이
개강합니다
Institution for Dance & Movement
수업과목: 발레, 현대무용, 레퍼토리, 한국무용, 재즈, 힙합,
어린이 영어발레, 요가, 필라테스, 스트레칭, 댄스스포츠, 벨리댄스,
댄서를 위한 연기, Improvisation & Movement Expression,
아르헨티나 탱고, 신체재활 및 동작치료, 라인댄스 외
강사진: 국내.외 전문 활동 경력의 우수 강사진 *반주 김희연
운영진: Art Coordinate Director-강혜련 / Creative Advisor-미나유
/ Administrator / Manager-서수지
수강료: 쿠폰제 운영, 쿠폰제로 다양한 과목 선택수강(홈피참조)
등록신청:국민 196401-04- 015533 강양진(STS무용학원)
문의/ 02-392-2011 입금/확인 010-5002-0785
website. www.seoultanzstation.co.kr, www.seoultanzstation.com
특강: 즉흥과 창작 / Improvisation & Composition /
Expression of Movement 강사: 미나유 / 일정: 2011년 1월 17~21,
24~28일, PM 1:30-3:30/ 총 10회/ 수강료: 20만원*
위치: 서울 서대문구 창천동 20-25, 이트레온 13층
문의: Tel. 02-323-9137, 010-6220-1071, 010-5044-5401
www.seoultanzstation.co.kr, www.seoultanzstation.com
2011년 1월 무용전문 센터 Seoul Tanz Station 개강
STS는 전공자와 비전공인을 위한 각 장르별 다양한 무용수업과
공연예술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연습과 창작을 위한 열린 공간입니다.

광고


Kore-A moves
"2010년에 이은 한국 안무가들의 본격 유럽 무대 진출"
2차 Kore-A-Moves 참가 작품 공모
Korean Dance in Europe
November 2012
2010년에 이은 2차 Kore-A-Moves 는
2012년 11월 유럽의 주요 무용 극장을 순회하는 일정으로 추진됩니다.
공모작품
1) 단독 공연 부문 – 한 컴퍼니 혹은 한 안무가의 작품을 단독 공연
60분 이상 길이의 1개 작품 혹은 30분 내외의 2개 작품
2) 연합 공연 부문 – 3명 안무가들의 작품을 모아 하나의 패키지로 공연
30분 내외의 작품 1개
신청마감 : 2011년 2월 15일
공모요강 및 신청방법 참조 : www.ipap.co.kr
문의 : 02)3674-2210 국제공연예술프로젝트 ipap
COORDINATOR
Bertram Müller, Germany
Jang Kwang ryul, S.Korea
ipap
tanzhaus nrw-EDN
Photo by Yoon Seok Woo

The Dance Webzine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2011. 02. 1. 제 17 호

■ 소식

한국춤비평가협회, '춤비평' 제27호 발간



■ 2010년 하반기 한국춤비평가협회 주요 활동

■ 기획 : 2010년 춤계를 돌아본다

2010년을 되돌아보며–세 가지 메모 / 김태원
춤의 또 다른 양식, 탈영토(脫領土) 기류 / 김채현
우주적 리얼리즘의 세계를 향한 우리춤 언어의 새로움을
- 춤패 배김새 25주년 기념공연에 즈음하여 / 채희완
한국의 춤은 이제 세계무대에서 논의되어야
- Kore-A-Moves(KAM)를 마치고 / 장광열
중심경계가 흐려지기 시작한 당대 중국무용의 흐름
- 상해 '동아시아무용의 다원전망' 학술회의에 다녀와서 / 이애순

■ 《2010 한국춤비평가상》

선정작 소개
수상자 4인 수상소감 / 강미리, 이인수, 김영숙, 김선희
베스트 작품 안무자 작업의 변 / 김용철, 김윤정, 전미숙, 허용순

■ 대담 채희완 Vs. 강미리

좀 더 자유로운 언어로 새로운 공간형성을 추구한 효명세자의 진혼무

■ 인터뷰

이숙재(M극장 대표)
전홍기 (공연기획 춤벗 대표)

■ 특집 1 한국춤의 현황과 국제교류
Kore-A-Moves 뒤셀도르프 국제 포럼

인사말 / 이순열
인사말 / 장광열
2000년 이후 한국 창작 춤의 안무 경향 / 이지현
한국춤의 현황과 흐름 / 김채현
한국 컨템포러리 춤의 세 측면 / 김태원
도약 단계에 올라선 국제교류 / 이종호

■ 시평 에세이

예술인 장관 / 장광열
전통춤 수상의 의미 / 김영희
뒤셀도르프 탄츠하우스 방문기 / 이만주
Kore-a-Moves 리뷰/ Bertram Muller

■ 특집 2 아시아, 아시아춤, 아시아성

<1> 무용에서의 아시아성 (SPAC Forum)

Ⅰ. 내부에서 본 무용에서의 아시아성
중국의 현대무용 / Jiang Dong
제3의 공간: 무용에서 현대 아시아의 무용탐구 / Caren Cariño
한국 현대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해 / 김태원
현대무용에서의 정체성: 호주와 아태지역을 중심으로 / Pilipa Rothfield
아시아 무용문화에 주름을 넣다: 아시아의 내부의 소통을 찾아서
/ Muto Daisuke
Ⅱ. 외부에서 본 무용에서의 아시아성
무용을 통해서 문화정체성을 인식할 수 있는가?
- 아시아 지역의 두 작품을 중심으로 / Elisabeth Nehring
아시아 현대무용에 대한 서양의 인식 / Donald Hutera

<2> 아시아무용계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2010 Asian Dance Symposium)

세계무용계 흐름과 아시아 무용의 위상 및 전망 / Alkis Raftis
남아시아 무용 현황 및 발전 전망 / Sunil Kothari
한국과 남아시아 춤의 원초적 특징
- 생태학적 측면에서 유럽춤과 비교를 중심으로 / 이병옥

■ 무용가를 말한다

잔잔한 통영 앞바다에 내려찍히는 검붉은 놀처럼
- 통영오광대 김홍종의 예술과 삶 / 채희완

김기인의 '스스로 춤' 인생
- 외곬의식의 춤길과 새로운 춤의 자각(自覺)에 눈뜨기 / 김태원

■ 논단

민속예술축제 50+1년을 돌아보며 / 이병옥
미적 체험으로서 신명과 한국연행예술의 극적 생성적 시공간 / 채희완
북한 무용예술연구에로의 문헌적 접근 / 이애순
몸과 춤, 그리고 춤추는 것들 상호간의 실질관계 / 권옥희
納曾利 퍼즐조각 찾기 - 나소리 무대도구의 의미에 관하여 / 서정록
강의실과 연습실 사이의 비평적 목소리 확장하기 / Ann Nugent, 번역 이지현

■ 리뷰

다양한 융합으로 가족 발레의 새 지평 제시 / 김채현
후반기, 중견 창작 안무가들의 몇 의욕적인 춤작업 / 김태원
재해석과 크로스오버, 컨템포러리 댄스의 묘미 / 장광열
영성(靈性)과 명상(冥想), 김기인의 <스스로 춤> / 이만주
'고 양소운 선생 추모공연' / 김영희
국립극장의 로비에서는 … / 이지현

■ 한국춤비평가협회 발족 선언문

■ 한국춤비평가협회 연혁 1982~2010

■ 한국춤비평가협회 회원 주소록

■ 영문목차

The Dance Webzine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2011. 02. 1. 제 17 호

■ 소식

춤 위기를 내쳐가는 다양한 발상들

– 무용계 신년 대화모임 및 2010 한국춤비평가상 시상식

한국춤비평가협회는 1월 22일 오후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무용계 신년 대화모임 및 2010 한국춤비평가상 시상식을 갖고 이 자리에서 올해 협회 사업 계획을 공식 발표하였다. 이날 행사는 협회 회원들과 춤비평가상 수상자를 비롯 박인자 발레협회장, 이숙재 밀물극장 감독,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 박일훈 국립국악원장, 한상근 전 대전시립무용단 예술감독, 손인영 나우무용단 예술감독, 장승헌 전 MCT 대표, 김형희 트러스트무용단 대표, 숙명가야금앙상블 송혜진 대표, 신창호 LDP 대표와 이해준 · 이광석 · 정혁준 · 이정화 · 강민호 씨 등 100여 명의 무용인이 모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이날 시상식은 작품상(<롱(弄)-효명세자를 위한 샤콘느>, 안무: 강미리), 연기상(이인수, LDP 무용단 단원). 특별상(정재연구회, 예술감독 김영숙; 김선희,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교수) 시상과 수상 소감 발표에 이어 춤작품 베스트 6 소개 순으로 진행되었다. (참조: 이번 수상작의 선정 이유 및 수상 소감, 베스트6의 수상 소감은 이번호 '춤비평'에 수록되었음.)



사진 한용훈

시상식에 앞서 열린 신년 대화모임에서 무용인들은 올해 활동을 소개 전망하는 한편 춤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언을 내놓았다. 특히 이날 대화 모임에서는 참석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춤 단체들의 신년도 계획에서는 해외 진출과 춤의 폭을 넓히는 구상이나 계획이 자주 거론되어 춤계가 위기의 현상에

맴돌지 않고 자구책을 찾아가는 데 적극적임을 시사하였다.

이 자리에서 김영숙 정재연구회 예술감독은 2008년 북경 중국예술원과 한중 양국의 전통춤 교류 사업을 시행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중국에는 전통춤 기록은 있으나 현대 정치 상황으로 인해 한국만큼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한국이 오히려 한중 양국에서 전통춤의 거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정재연구회는 2009년 한중일 궁중무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김 예술감독은 또한 정재연구회가 2010년 시작한 고려 왕족의 악무(樂舞) 사업을 올해도 더 다듬고 일무와 교방무 계열 궁중무의 충실한 재현에 더 중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지난해 창작 초연작 등을 합해 모두 130여 편의 소극장 기획-대관 춤 공연 실적을 거둔 엠(M)극장은 올해 극장 공간의 활용도 제고, 국제 교류 강화, 젊은 층 육성 등의 주요 방침을 소개하였다. 이 극장은 올해에도 기존 기획을 지속하면서 핀란드, 독일과의 교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우리 춤의 길을 묻는 기획 프로그램 신설 등의 계획을 전하였다. 엠극장과 함께 밀물예술진흥원의 자매 기구인 한글춤연구소는 한글춤의 디지털 콘텐츠화 사업을 추진중인 동시에 지난 20년간 지속해온 한글춤 공연을 2011년도에는 간소화하는 방안, 해외 진출 방안, 다수 안무가와의 협력 안무 방안 등 새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을 말해, 춤계에서 강화되고 있는 레퍼토리 개발 기류를 대변하였다.



대화 모임 장면

사진 한용훈

국수호 디딤무용단 예술감독은 2010년 명동극장의 '명성황후' 공연에 춤의 필요성을 지적해서 디딤무용단이 공연한 것이 전국문예회관연합의 사업으로 채택되어 전국 공연이 성사된 경위를 예로 들면서, 춤계가 정체성이 뚜렷한 작품으로 관객에 접근해 들어가는 공연 전략을 고려해 볼 것을 강조하였다. 국수호 감독에 따르면 디딤무용단은 올해 '코리언 드림'으로 에딘버러축제에 참가할 예정으로 있다. LDP무용단 역시 올해 3월 스코틀랜드와 뉴욕 제이콥스필로우에서 공연할 것임을 밝혀, 지난 몇해 증가해온 국내 무용단의 해외 공연 추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춤비평가상 특별상을 정재연구회가 수상한 데 대해 축하차 참석한 박일훈 국립악원장은 전국

에 국악관현악단이 35개 단체에 달하는 사실에 비추어 공연에서 춤을 정책적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날 박원장은 국악 관현악을 반주로 하는 창작춤 개발에 더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다라 대본과 안무 개발 양면에서 좋은 작품을 추천해줄 것을 제안하여 관심을 모았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트러스트무용단은 이번 신년 대화모임에서 올해 노동부 지원으로 12명의 단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등 사단법인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 단체는 올해 러시아 소치를 비롯해서 네덜란드와 독일 등지에서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된 무용단은 이외에도 여럿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민간 무용단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할 것을 뒷받침하는 전략이 춤계에서 적극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인자 발레협회장은 농어촌,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및 청소년 대상의 발레 공연 행사를 협회 차원에서 개발할 계획임을 밝혔다. 발레뿐만 아니라 춤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되는 이런 행사들이 이번 모임에 참석한 다른 단체들의 사업 계획에서도 제시되어 춤이 전문 공연 무대를 고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추세임을 보여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이날 축하차 참석한 숙명가야금앙상블의 송혜진 대표 역시 노동부의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서 연주자들의 활로를 모색하고 관객을 확대하기 위해 택한 운영 전략과 경험을 소개하였다. 또한 춤 활성화 행사의 일환으로 이종호 세계무용축제 예술감독은 4월 29일 유네스코와 함께 (세계) '춤의 날'을 국내에서도 열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올해 춤의 날 행사를 춤계의 여러 단체들과 함께 모든 춤 장르를 망라하여 야외에서 여는 것을 내용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한편, 이날 동시에 발표된 한국춤비평가협회 2011년도 사업 계획에서는 협회 창설 2년차를 맞아 비평 연구 작업이 심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연2회 이상 오프라인 기관지 '춤비평' 발간을 비롯하여 협회는 4월 신춘 정기 포럼(예정 주제: 춤 페스티벌 측면의 춤 진흥책과 국제 진출 방안), 6월 제1차 한국춤비평아카데미 개최, 8월 협회 워크숍 개최, 10월 제2차 한국춤비평아카데미 개최, 국제 공연예술 저널리즘 포럼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아울러 춤웹진을 지면을 혁신해나가면서 계속해서 월 2회 발간하는 계획도 밝혔다.

* 춤웹진

The Dance Webzine 한국춤비평가협회 The Korean Association of Dance Critics and Researchers

2011. 02. 1. 제 17 호

■ 시평

예술 난개발 4

- 문화예술과 상품은 상생(相生)은 가능한가

김 채 현 (무용원 교수 / 본 협회 공동대표)

홍대앞 지하 주차장 건설 계획으로 인해 홍대앞 문화예술이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본란에서 제기한 바 있다.('춤웹진' 제15호 참조)

그런데, 지난 1월 18일 '홍대앞 브랜드 유지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상가 상생 포럼'이 열려 이른바 지하 주차장 건설 논란에 어떤 전환점이 마련될지 모른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홍대앞 걷고싶은거리 상인연합회가 홍대앞 문화예술인들을 초청해서 열린 이 포럼의 형식에 비추어 짐작하자면, 국내에서 이런 포럼이 시도된 적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국내 최초 포럼이 아닐까 한다. 특히 상인연합회가 주체적으로 다수의 문화예술인을 '초청'한 것은 오늘날 국내 상인들의 의식도 어느 정도 변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날 포럼은 상인연합회 대표가 지하 주차장 건설 현안에 대해 소견을 간략히 발표하고 문화예술인들이 각자 홍대앞 문화 행사를 추진해온 내용과 애로점을 밝히고 나서 홍대앞 이해 주체들이 소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상인연합회의 요청에 따라 필자는 이번 포럼에 홍대앞 문화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상인과 문화예술을 언뜻 대척점에 두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날에도 일반적인 세태인 줄 알았는데, 이번 포럼을 접하고 보니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인식부터 바꿔야 한다는 결론 아닌 결론을 갖게 된다.

도시 재개발, 또는 도시 계획은 도시가 존속하는 한 나타날 필연적인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항상 제기되는 문제는 그 결과가 얼마나 생산적일까 하는 점인데, 이 생산성의 평가 척도는 그리 만만치 않다. 그것은 도시 재개발의 경우 소위 말하는 이해 당사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입장에 따라 평가 척도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특히 홍대앞처럼 문화예술(인)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해당사자로 존재한다면 평가 척도는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다시 말해 홍대앞은 거주민, 상인단체, 클럽, 문화단체, 문화예술인, 정부(즉 마포구) 그리고 시공사가 이해 당사자로 상정될 수 있다. 이미 10여년전부터 홍대앞을 제각각 관광명소, 유흥공간, 사교공간,

놀이문화공간, 문화발전공간, 문화해방공간으로 보는 여러 시각은 그런 이해 당사자들의 일반적인 평가 척도를 대변한다.

상인연합회가 홍대앞 브랜드에 대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 적이 없었을지라도, 그동안 상인들은 홍대앞의 상품 가치를 강조해온 데 비해 문화예술인들은 문화 가치를 강조해왔다는 것이 대체적 관측이다. 그런 터에 이번에 상인연합회가 앞서의 포럼을 능동적으로 개최하면서 문화예술인들에게 먼저 악수를 청한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야 할까.

상품 가치와 문화 가치가 공식적으로 제시될 경우, 명분에서 밀리는 것은 상품 가치이다. 상인연합회도 이런 점을 모르지 않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악수를 청한 원동력은 문화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려는 의지가 아닐까 생각된다. 홍대앞 상인들이 생산하는 상품은 메뉴 음식, 패션 소품, 오락 놀이가 대종을 이룬다. 이들 소비재가 상품 가치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번 포럼은 이들 소비재에서 문화 가치를 발견하거나 기대하는 선으로 상인들의 인식이 진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번 포럼에 초청받아 참여한 문화예술인들은 홍대앞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문화예술 축제나 행사를 개최해온 장르별 전문인들이다. 이 자리에서 그들은 대체로 상인들의 이해 부족과 그에 따른 애로점을 다수 지적하였다. 과거 같으면 사석에서나 나올 법한 지적 사항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도 상인연합회가 주최한 행사에서 쏟아진 것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

혹자는 홍대앞이라서 상인들이 이런 행사를 능동적으로 여는 것이 가능했지 다른 지역 같으면 아직 시기상조일 것이라 하였다. 그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역이 어디가 되었건, 이번 포럼은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의식 변화를 알리는 단서로 수용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상인과 문화예술을 언뜻 대척점에 두고 생각하는 구태의연한 사고가 문화예술 및 상업 활동에서도 창조적이며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로막는다.

도시 재개발에서는 재개발하되 어떻게 할 것인가가 초점이 된다. 대개는 자본과 행정력이 그 방식을 주도하지만, 최종 결과가 창조적이라 평가받는 경우는 아주 드물다. 그것은 경합하는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이해 당사자들이 추구하는 제각각의 가치들이 수렴되지 못한 채 자본과 행정 편의에 의해 도시 재개발이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세태와는 전혀 다르게, 이번 포럼은 상인들이 문화 가치를 상품 가치의 모태(母胎)로 대하는 변화를 상징한다. 앞으로 어떻게 진전될지 지켜봐야 하겠으나, 상인들의 그러한 변화 조짐을 문화 가치에 반영하는 인식이 문화예술인들에게도 필요한 것 같다.

비록 지하 주차장 및 상가 건설 계획에서 발단되긴 하였으나, 이번 포럼은 누구나 호감을 갖는 상생 개념이 앞으로 예술과 상거래 활동에서 자주 나타날 조짐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변화는 문화예술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접 상업 활동에서도 조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예술 난개발 예방 차원뿐만 아니라 문화예술 활성화 차원에서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 춤웹진